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산업 생산 두달 연속 상승
- WSJ: 연준 이사 Waller, “금리 인하 가까워지고 있다”

[미국 금융]

- CNBC: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금값 최고치 기록

[미 대선]

- NYT: 트럼프와 밴스 부통령 후보, 약달러 추진

[미국 생활]

- CNN Business: 재택 근무로 비어 있는 사무실의 아파트 개조 늘어

[부동산]

- Bloomberg: 해외 바이어들의 미 주택 구입 최저치 기록
- Bloomberg: 미국 주택 착공, 다세대 주택 건설 증가로 회복세
- CNBC: 모기지 금리 하락에 2년래 최고치 찍은 채용자 수요

[미중 경제]

- Bloomberg: 미국, 중국 반도체에 더 엄격한 무역 제한 조치 검토

[국제 경제]

- WSJ: IMF, 새로운 관세 정책으로 인한 고금리 지속 가능성 경고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프롤로지스,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로 미래 성장 확신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Industrial Output Posts Largest Back-to-Back Gains Since 2021

미 산업 생산 두달 연속 상승

- 미 산업생산이 5월과 6월에 견조하게 성장해 제조업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 공장, 광산, 유틸리티의 생산이 5월에 상향 조정된 후에 6월 들어 0.6% 상승해 지난 2021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2개월 상승세를 보였다고 연준이 오늘 수요일 발표했다.

- 공장 생산만의 경우 자동차, 전자 장비, 가전제품, 비내구 제품 등 광범위한 상승을 보였는데 상승 비율은 0.4%다. 5월의 1% 상향 조정 후에 잇따른 상승세를 보였다. 광업 및 에너지 추출은 0.3% 증가한데 반해 유틸리티는 상승세가 크게 증가했다.

Bloomberg 기사

WSJ: Fed's Waller Says Central Bank Is 'Getting Closer' to Cutting Rates 연준 이사 Waller, “금리 인하 가까워지고 있다”

- 연준 이사인 Christopher Waller는 최근 발언에서 미 경제가 소프트랜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빠르면 금리가 9월에 인하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그는 “최종 단계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금리 인하가 확실한 시점에 가까워오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2개월 전만 해도 금리 인하를 보여줄 만한 수개월간의 충분한 데이터가 필요하며 12월 전에는 금리가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가 입장을 바꾼 것은 최근 노동 시장 상황과 인플레이션 관련 데이터가 물가 하락 현상을 보이고 있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WSJ 기사

[미국 금융]

CNBC: Rising U.S. rate cut optimism steers gold to all-time high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금값 최고치 기록

- 연준이 9월에 금리 인하 할 것이라는 확신이 커지면서 금값이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월요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가 연준의 2% 물가 목표에 도달할 때 까지 기다리지 않고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 금 현물은 전날 장에서 온스당 최고치인 \$2,482.29를 기록한 후에 \$2,468로 약간 떨어져 거래되고 있다. 미 금 선물은 \$2,467.80에서 거래되고 있다.
- 일부 전문가들은 연준의 9월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되고 있으며 중앙은행들이 미 국채 수익률에 대비해 금을 더 많이 구입하는 상황으로 인해 금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CNBC 기사

[미 대선]

NYT: Trump-Vance Administration Could Herald New Era for Dollar 트럼프와 밴스 부통령 후보, 약달러 추진

- 트럼프와 밴스 부통령 후보는 중국에 대한 무역 규제와 관세 강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 특히 이들은 달러 절하가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트럼프는 달러가 강세일 경우 미 제조업체들이 해외에 수출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마디로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달러 약세를 표방하고 있다.
- 밴스 대통령 후보는 달러가 해외 중앙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고의 주요 화폐로서 미 소비자들에게는 지원금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미 제조업체들에게는 세금을 부과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 한편 달러는 2차대전 이래 기축통화로서 해외 중앙은행들의 외환 보유고 중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NYT 기사

[미국 생활]

CNN Business: Work from home could lead to more homes in vacant offices

재택 근무로 비어 있는 사무실의 아파트 개조 늘어

- 팬데믹 이후 사무실 출근과 다운타운 사무실 근무가 크게 줄어든 것은 코로나 19로 인해 재택 근무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많은 사무실 빌딩들이 아파트로 개조되고 있다.
- 올해 2분기 미국에 비어있는 사무실 비율이 20.1%라고 무디스 사는 최근 발표했다. 현재 주택 공급은 크게 부족한 상태로 지방 정부들은 사무실로의 개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개조 신청 승인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 부동산 업체 CBRE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미 공급 중에 거의 7천만 스퀘어 피트의 사무실 공간, 즉 1.7%가 올해 1분기에 다른 용도로 개조되고 있다. 이들 개조되는 사무실의 63%가 다가구 주택으로 개조될 것으로 보인다.

CNN Business 기사

[부동산]**Bloomberg: US Homes Are Increasingly Out of Reach for International Buyers****해외 바이어들의 미 주택 구입 최저치 기록**

- 달러 강세와 매물 부족으로 인해 미국 주택에 대한 해외 구매가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다.
- 비시민권자들은 오는 3월까지 12개월 동안 미국의 기존 주택 5만4천3백채를 구입했다. 이는 작년 동기간에 비해 36% 감소했다고 전국 부동산협회는 밝혔다. 이는 외국인들의 미 주택 구매를 기록한 지난 2009년 이래 가장 적은 수치라는 것.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Housing Starts Increase on Pickup in Multifamily Construction**미국 주택 착공, 다세대 주택 건설 증가로 회복세**

-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이 6월에 회복세를 보였지만, 단독주택 착공은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 수요일에 발표된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총 주택 착공 건수는 다세대 주택 건설의 19.6% 급증에 힘입어 연율로 3% 증가한 135만 건을 기록했다. 반면 단독주택 착공 건수는 4개월 연속 감소했다.
- 건축 허가는 다가구 프로젝트의 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3.4% 증가한 연간 145만 건을 기록했다. 단독주택 허가는 2.3% 감소하여 1년여 만에 가장 느린 속도로 감소했다.
- 작년 말에 보였던 단독주택 건설의 강세가 약화되고 있으며, 건설 중인 주택 수가 2022년 초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건축업자들이 수요에 맞춰 재고를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Bloomberg 기사

CNBC: Mortgage refinance demand jumps to a 2-year high, as interest rates drop**모기지 금리 하락에 2년래 최고치 찍은 재융자 수요**

- 지난주 모기지 금리가 3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주택 재융자 수요가 급증했다. 그러나 주택 구매자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 모기지 은행 협회(MBA)의 계절 조정 지수에 따르면, 지난주 주택 대출 재용자 신청은 전주 대비 15% 증가하여 2022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모기지 금리는 1년 전과 같았지만 재용자 수요는 37%나 더 높았다.
- 재용자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이는 매우 낮은 수준에서 반등한 것이다. 재용자 수요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20년 초에 비하면 여전히 70% 넘게 낮은 수준이다.
- 30년 고정금리 모기지의 평균 계약 금리는 6.87%로 전주 7.00%에서 하락했고 20% 선납금을 낸 대출의 경우 수수료는 0.60에서 0.57로 떨어졌다.

CNBC 기사

[미중 경제]

Bloomberg: US Floats Tougher Trade Curbs in Chip Crackdown on China 미국, 중국 반도체에 더 엄격한 무역 제한 조치 검토

-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에 대한 반발에 직면하자, Tokyo Electron과 ASML 홀딩스와 같은 기업들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을 허용할 경우 가장 강력한 무역 제한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동맹국들에게 알렸다.
- 이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미국이 동맹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해외 직접생산품규정'(FDPR)이라는 조치를 부과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규칙은 미국 기술을 조금이라도 사용하는 외국산 제품에 대해 통제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 이러한 조치는 동맹국들에게 엄격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기계를 생산하는 일본의 Tokyo Electron과 네덜란드의 ASML의 중국 내 사업을 단속하기 위해 이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이 아이디어를 일본과 네덜란드 관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으며, 양국이 자체적인 중국 제재를 강화하지 않을 경우 해당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국제 경제]

WSJ: Fresh Tariffs Could See Interest Rates Stay Higher for Even Longer, IMF Warns IMF, 새로운 관세 정책으로 인한 고금리 지속 가능성 경고

- 국제통화기금(IMF)은 새로운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다시 증가시키고,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높게 유지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IMF의 최신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선거로 인해 정부 차입이 급증할 수 있어 차입 비용이 커질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비스 가격과 임금이 계속해서 빠르게 상승하면서 하락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지고 있다.
- 또한, 새로운 관세 정책과 기타 무역 장벽이 인플레이션율을 더 높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중앙은행이 현재의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할 수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의 일환으로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10%,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 유럽 연합(EU)은 중국산 전기차 수입에 관세를 부과했으며, 중국은 EU산 돼지고기 제품을 포함한 일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11월 트럼프의 승리에 대비하는 투자자들은 세금 감면으로 인해 미국 정부의 차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Prologis Says Demand for Data Centers Is Boosting the Industrial Property Outlook

프롤로지스,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로 미래 성장 확신

- 세계 최대 산업용 부동산 회사인 프롤로지스(Prologis)는 2분기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수익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이는 신규 창고 파이프라인이 줄어들고 인공지능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프롤로지스는 6월 30일에 종료된 3개월 동안의 주주 순이익이 8억 5,980만 달러(주당 92센트)로, 전년 동기의 12억 1,000만 달러(주당 1.31달러)에서 감소했다고 밝혔다. 핵심 운영 자금은 주당 1.34달러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인 주당 1.33달러를 약간 상회했다.
- 매출은 전년 대비 18% 감소해 20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20억 2,000만 달러에 미치지 못했다.
- 프롤로지스의 최고 경영자 하미드 모하담(Hamid Moghadam)은 “고객 수요는 여전히 부진하지만 개선되고 있으며, 건설 파이프라인이 축소됨에 따라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인공지능 인프라 확장을 위한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시설에 대한 수요가 “미래 성장에 대한 엄청난 확신”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WSJ 기사

미 금리인하 기대↑, 7월 설도...트럼프 '대선 전 반대' 변수되나

**금융시장 "9월 동결 확률 0%"...금리 방향 전환 너무 늦다 경고음 커져
연준, 인하 시기 힌트는 안 줘...물가 다시 튄까 봐 신중**

미국 금융시장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금리인하 개시가 거의 기정사실로 여겨지며, 당장 7월 단행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11월 대선 전 금리인하에 반대한 것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